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친구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선생님이 “청소 잘했네!” 하고 칭찬해주셨는데, 사실은 친구가 거의 다 해놓은 것을 살짝 도와준 정도였던 적이요. 곁보기엔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스스로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곁모습은 멋져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사람을 비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이 인사해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도할 때도 “나 좀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길게 기도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사람들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개, 아주 작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어요. 많은 것을 드린 사람보다, 마음을 다해 드린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게 보였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예배할 때 마음을 드리고, 친구를 도울 때 진심으로 돋고, 작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친구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제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다 같 이

말 씀 봉 독 누가복음 20:45~21:4절 다 같 이

설 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설 교 자

말 씀 나 늄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내가 매일 해야 하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적어 보여도,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과부처럼 마음을 다해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예수님이 부자들과 과부 중 누구의 현금을 더 귀하게 보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싶나요?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담아 드려볼 수 있을까요?